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특장차 박람회 국제규모 확대 가능성

김제시 '제2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특장기업 수출계약 체결  
경진대회 시상 등 '풍성'  
27개사 40여종 특장차량  
특장 농기계 등 선보여  
첨단 특장차산업 기술  
발전 방안 주제 토론토



지난 24일 제2회 미래특장차산업 박람회가 김제 백구면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사) 한국특장차협회와 함께 지난 24일 제2회 미래특장차산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유일한 특장차 집적화 단지인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개막식에는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 의장, 업체 및 유관기관,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레저용 캠핑 특장이 주요품목인 (주)유로오토와 미국 기업 (주)캘러쉬 간 1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기념하는 체결식을 진행해 특장차산업의 수출시장에 대한 청신호를 알렸다.

또한 박람회 개최 전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주관 8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특장차 부품 설계 및 정비 분야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9명의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특장차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발굴육성의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됐다.

전시회에서는 도내 기업에서 제작된 청소차, 소방차, 사다리차 등 40여종의 특장차량 및 특장 농기계 관람과 함께 단지 내 특장차 인증시설 및 시험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특장기업,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정책세미나

에서 미래 특장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특장차산업 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도내 참여 기업인들의 컨설팅과 수출 판매상담을 진행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장차 그림그리기 대화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해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작년에 이어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법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장차 박람회가 국내를 넘어 국제 박람회로 그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국 유일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보유한 김제시가 대한민국 특장 산업의 우수함과 기술력을 알리고자 준비한 행사"라며 "앞으로 김제시는 특장차 산업 선도도시로서 특장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글로벌 시장에는 국내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국회의원은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농안법 개정 등 주요문제에 의해 불참했으며, 대신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면으로 축하했다. /이만호 기자·김제=곽노태 기자

## 전국 최초 여성 소방감 탄생

이오숙 신임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 실현 최선"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이오숙 소방감(57)이 5월 27일자로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취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오숙 본부장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고위직인 소방감으로 승진했다.

소방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사관(2급), 경찰의 경우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소방조직 내에 소방감 계급 정원은 소방청 6명, 시도 소방본부장 10명으로 총 16명이다.

소방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오숙 본부장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오숙 본부장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재학생이던 지난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에 근무했고,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 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 긴급 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

방청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02년부터 3년 여 동안 대전북부소방서 공동119안전센터장(대전충남지역 최초 여성)을 역임했고, 2018년 대구북부소방서장에 임명되며 영남권 최초 여성 소방서장이자 최연소 여성 소방서장의 기록을 썼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3년 여 동안 소방청 코로나19 긴급 대응과장을 역임하며 국민의 안전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이오숙 본부장은 지난 2023년에는 여성 최초 소방청 대변인에 임명되기도 했다.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위기관리 역량과 조직 내 의사소통 강화 능력을 인정받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소방의 주요 정책과 현장을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혁신적 소방 홍보를 이끌었다.

이오숙 본부장은 "최초 여성 본부장으로 임명된 만큼 보다 더 세심하게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추진력을 받았다.

전북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4년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과학문화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를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 및 신청해 지난 3일 최종 선정됐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된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2006년부터 생활과학교실, 삼성꿈장학재단 사

## 과학문화 확산 추진력 얻다

전북자치도, 과기부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공모 선정  
과학문화거점센터로 국립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지정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문화 활성화 위해 3억 투입

업 등을 수행해 왔다.

올해 총 3억원(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지원, 미래과학캠프, 사이언스 콘서트 운영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

화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전북자치도 과학문화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전북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과학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고, 도민들이 과학기술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북의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의대 정원 골자 학칙개정안, 전북대 학무회의 통과

27년만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대가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소집한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학무회의의 결과에 대한 대학평의회 심의는 27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학평의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학칙 개정안은 공포된다. 앞서 전북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교

수평의회서 학칙 개정안 재심의건을 가결했다.

재심의를 참석한 26명의 교수 중 65%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는 의대 입학생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지만, 내년만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71명을 모집하는 학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학내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교수평의회는 의견권을 가진 36명의 평의회 위원 중 과반 이상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칙개정을 부결시켰다. /김재훈 기자

www.jpsmall.com

NAVER 지평선

###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 지평선 JIPLYEONGSEON 김제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제시